

원유가격 5% 올렸는데 유제품은 최대 25% ↑ ‘꼼수 인상’

농식품부, 내년부터 차등가격제 시행
가공유용 원유 리터당 147원 할인
미리 가격올려 인하요인 대응 지적

우유와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 기본가격이 인상된 이후 흰 우유는 물론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등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앞선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리터당 49원 인상됐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가격이 음용유용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유제품 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가격



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치즈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스

을 평균 6~8% 인상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1000㎖를 기준으로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로 책정됐다.

그런데 유제품 가격은 더 올랐다. 서울우유는 서울우유 생크림과 버터 가격을 각각 10%, 7%씩 인상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치즈 제품 출고가를 약 20% 올렸다. 밸효유 제품인 ‘비요뜨’

출고가는 5%대로 올렸다.

빙그레 요구르트 제품 ‘요플레 오리지널’은 16% 오르고, 매일유업은 원유 가격 결정 전인 지난 10월 이미 밸효유 제품 가격을 15~25% 올렸고, 휘핑크림 가격도 6~7% 인상했다.

남양유업도 11월부터 대리점 출고 가 기준으로 ‘맛있는 두유GT’ 등 두유

제품을 평균 14%, ‘불가리스’ 등 밸효 유는 평균 10%, 치즈는 평균 15% 인상했다.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현재 리터당 947원에서 147원(약 15.5%) 하락한 8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가공유로 만드는 유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업계에서 이에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려 향후 인하 요인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했고, 정부의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흰 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5% 인상

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김정숙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가 사용되는 커피, 빵류 등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우려가 있으나, 올해 이미 커피, 빵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점, 빵 등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단녀 85% 30~40대...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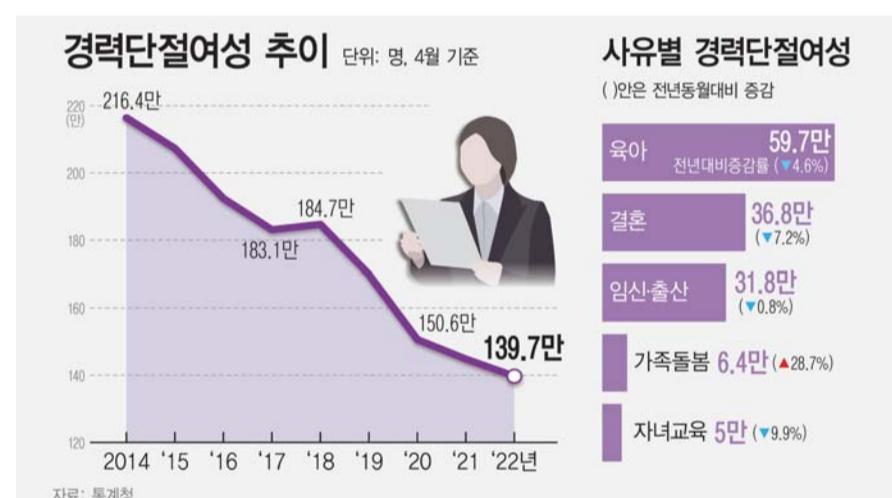
통계청,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현황
기혼여성 중 37% 취업상태 아냐
전년대비 경단녀 3.5% 줄었지만
결혼기피 등 고려 ‘감소’로 보기 어려워

올해 상반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주로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000명 중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302만 7000명(37.4%)이었다. 이중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144만 8000명)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도 17.2%로 1년 전(17.4%)보다 소폭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젊은층의 결혼 기피 경향과 인구 감소로 기혼여성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30



대가 60만명(43.0%), 40대 58만8000명(42.1%)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5만2000명(10.9%), 15~29세 5만7000명(4.1%) 순이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59만7000명(42.8%)이 육아를 꼽았다. 결혼 36만8000명(26.3%)과 임신·출산 31만8000명(22.7%) 등의 응답도 많았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7만 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35만7000명(25.5%), 3~5년 미만 19만8000명(14.1%), 1~3년 미만 15

만2000명(10.8%), 1년 미만 11만9000명(8.5%) 등이었다.

올 상반기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포인트 늘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위킹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국내 차별적 수수료 스스로 시정”

공정위 조사 착수에 ‘항복’ 한 듯
“국내 앱 개발사 어려움 덜어줄 듯”

국내 앱개발사들에게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판교에서 앱개발사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애플의 국내 앱개발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 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 앱개발사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를 겨냥해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최초 앱마켓은 국산 게임과 영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면서도 “반면,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림에 따라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앱개발자 여러분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징수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공항공사, 탄소중립 추진성과 인정받아

그린애플 어워즈서 금상 수상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의 탄소중립 성과를 인정받았다.

22일 공사는 전날(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2 그린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의 탄소중립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탄소감축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린애플 어워즈’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와 영국 환경청이 공식 인정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친환경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태양광 1122KW, 지열 1519RT(냉동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공항의 전력·냉난방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1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2 그린애플 어워즈’ 시상식에서 이종호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가운데)이 The Green Organization 관계자(왼쪽)와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韓 제안 ‘가상 생산 시스템’ 국제표준 제정

산업부, 내년 하반기 중 제정 예정

한국이 제안한 제조업 생산 자동화 기술인 ‘가상 생산 시스템’이 내년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23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국내 외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 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국제표준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방식, 상호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 ‘가상 생산 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 안(DIS)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